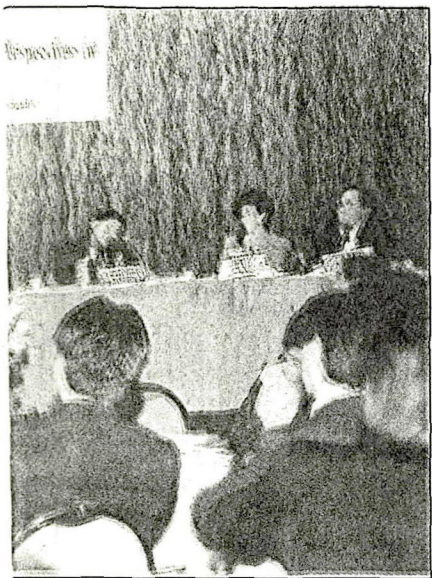


2/13/93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공개
유니티 리더 및 단체 관계자들이
에서 열렸다. <이승관기자>

서 열렸다.

김창준 연방하원의원을 비롯 노만
미네타 연방하원의원, 나오 타카수
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피터
파하르도 카슨 시장대행, 주디 추
몬트레이파 시의원, 토니 램 웨스트
민스터 시의원등 아시안 아메리칸
출신으로 선거를 통해 미 정계에 진
출한 6명의 패널리스트가 참가한 이
날 토론회에서 이들은 미 정치사회
에서 아시안들의 진출상황을 살펴보
고 앞으로 아시안들이 정치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 일본·
중국·베트남·태국과 필리핀·캄보
디아등 아시안 각국 커뮤니티 리더 및
단체 관계자 2백여명이 참여했다.

정신대 보상 20만 서명운동

「대책협의회」회견

미서부정신대대책협의회(CAMM
S)는 11일 하오 2시 우래옥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한인여성을 포함해 20
만명의 젊은 여성들이 전장으로 끌
려가 섹스의 노예로 학대 받았을 뿐
아니라 살해되고 암매장됐다』고 밝
히고 『50년이나 지난 후에야 정신대
의 참혹상이 하나씩 밝혀지는 상황
에서 우리는 일본정부의 도의적사
죄와 생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신대대책협의회는 20일 상오 9
시부터 영락교회에서 정신대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일반의 인식
을 높이는 한편 유엔을 비롯해 국

제인권기구의 관심과 개입을 이끌어
내기위해 20만 서명운동을 벌일 계
획이다.

정신대대책협의회의 공동의장인
김옥숙교수(UCLA)는 『정신대의
참혹상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잊혀져가는 일본군의 인권유
린의 역사를 일깨워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
함이며 일본커뮤니티와 한인커뮤니
티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
다』고 전제하고 『이 캠페인에 일본
인들의 참여와 지원이 매우 크다』
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UC어바인 최
정무교수, 김인자변호사, 아더 송
변호사, 고국현목사 등이 참석했
다. <이한욱 기자>

ALITION AGAINST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미서부 정신대 대책협의회 공동의장 김옥숙 교수가 11일 기자회견에서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잔학상을 고발하고 있다.

금란노인회 정학봉 새회장 「사랑·화합」강조

지난달 29일 금란노인회 93정기총
회에서 5대회장으로 선출된 정학
봉씨는 『재임기간 사랑·화합·봉사
정신으로 회원간의 상호 친목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포
부를 밝혔다.

「없을때 칭찬하고 있을때 칭고하
며 어려울때 도와주자」는 구호아래
1천 5백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금란
노인회는 55세이상 70세이하의 한인
은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82년 설립된 금란노인회는
노인들의 각종 영문서류작성과 노
인아파트 알선, 상조회운영등 노인
복지와 친목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213)737-4102, 732-7767



▲금란노인회 정학봉 회장(왼쪽)
회장(여회장)과 취임 포부에 대해 밝